

“대한민국 최고 명문학교로 성장해야”

포천중학교 開校 60주년 기념식 · 60년사 출판기념회

포천중학교(교장 오성근)는 5월 17일 오전10시 교내 은행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식과 '포천중학교 개교 60년사'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충규 전 포천향 교정교, 정동화 전 인천대학교 총장, 이찬호 교사, 이구상 전 교장, 이각모 포천중·일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진모 장관, 조성인 포천중·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고조흥 국회의원,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 이우형 경기도의회의원, 조문찬 경기도교육위원등 200여명의 동문과 내빈 및 재학생이 참석했다.

오성근 포천중학교 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앞으로 전진해온 포천중학교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학교, 큰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인 포천중·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은 “개교 60주년을 116천여명의 동문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선배들

은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만남을 통해 꿈을 키우고 국회의원 3명, 수많은 장군, 대학 총장, 박사, 변호사로 성장했으나 정작 포천시장은 우리 동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포천에 내노라하는 유지분들은 많지만 정작 오피니언 리더그룹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히고 앞으로 100년, 200년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교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문찬 교육위원은 “꿈을 갖고 노력하는 학교로서 특목고, 특성화고에 많이 진학하여 실질적인 명문학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오성근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를 잘 경영하여 우수인재발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고조흥 국회의원은 “18회 졸업생으로서 60주년 자랑스럽다”며 “중학교 재학시절 검사가 꿈이었는데 이 꿈을 이루었다며 여러분도 꿈을 갖고 성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자는 “어



포천중학교는 5월17일 오전10시 교내 은행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식과 '포천중학교 개교 60년사'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려운 시절 1학년때 담임선생님이 참고서 2권을 선물로 주셨을 때가 전환점이 된 것 같다”며 “꿈을 갖고 노력하고 실천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포천시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는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충규 전 포천향교 전교는 “역사적으로 포천에는 사육신 유능부,

봉래 양사언, 오성과 한음, 양문대 인서구, 면암 최익현 등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며 “선현들의 명성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이 나라의 동량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이어 포천중학교 개교 60년사 발간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5월의 행사

살랑 살랑 봄바람이 저만치 물러가고 차마 밑에 제비가 날다니 수줍음 녹색들이 산과 들을 가득 채우고 여기저기 초여름의 싱그러움 꽃내음들은 향수처럼 우리 몸에 콧속을 간지럽히고 있는데 가정의 달 5월은 어김없이 또 찾아왔다.

형형색색의 꽃들은 나비와 풀벌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일감을 제공해주고 민물이 분주스럽게만 한 것 같다. 어린이 날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책상을 지켜야만 하는 마지막 13살의 어린이가 되고 말았다.

어린이 특선영화와 공연들이 있을 것이고 야외의 가족들간에 들놀이도 있을 터인데 우리집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시합과 운동회로 끝치아픈 5월이지만 매일이 아닌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날씨 화창한 연휴에도 주말에도 어린이날에도 놀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나날들이다. 더군다나 6학년들은 14세 부터는 청소년에 속하니 말이다.

모두가 들떠서 아담인데 나로서는 TV 시청과 공부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했다. 중간고사라는 것이 마지막 어린이날을 묶어놓았기에 저학년에게는 가장 기대되는 어린이 날이라면 고학년에게는 어머니

날 또한 부담스럽기만 하다. 며칠전부터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할지 신경이 쓰이고 당압에는 조마조마 하고 부모님의 표정과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고 이것저것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하는걸 느끼게 되니 조금은 성정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어린이날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다.

이왕에 쓴 편지이고, 또 늦었으니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서운하신지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적지도 못한 편지들.....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무슨 이야기부터 적어야 할지 몰라서..... 편지지 받도 채우지 못해 아쉬움이 많은 편지였다.

친구들은 모두 시내에 살아서 카메이션을 사서 달아 드렸다고 했을 때 나는 뭘했나... 피아노 학원 가는 길에 잠깐 세워달라고 해서 사드릴걸..... 하는 후회도 되었다. 숨씨가 없어서 만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도 잘해드린것도 아닌데... 아버지 주일이라 해서 교회 로비에서는 빨간 카메이션을 모

든 부모님들의 가슴에 달아 드렸는데 우리 아빠와 엄마는 달지 않으셨다. 우리 자식이 달아주지도 못한 꽃을 왜 남의 손길을 통해 달아야 하나 하는 마음에 그냥 교회로 들어가셨다고 하신다. 또한 꽃을 달아야 하는 부모자적도 미달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를 향한 위책이라는 생각에 양심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어찌되었든 나는 꽃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계신데 못 달아 드린 것은 분명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달아 드렸을텐데 말이다.

올해 하지 못함을 또 내년으로 미루고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해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호도방학도 연휴도 우울하고 죄송한 5월이 되고 말았다. 엄마하고 목욕이나 가서 훌훌 털어 버리고 이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쁜 딸 착한 딸로 마음민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은혜 학생기자지단 부단장

학교에서 교복과 체육복에 명찰 달아주기

송우고등학교 학부모회 면학분위기 조성 위해

송우고등학교(교장 이재이) 학부모회(회장 고경자)는 학생들의 교복과 체육복에 명찰을 달아줌으로써 교복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학생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손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의 위치를 인정하고 우리사회의 멋진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우고등학교는 2007년 개교한 학교로서 최첨단 교육시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철저한 학생지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송우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육 이외에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교통지도를 통해 자칫 기초질서를 경시할 수 있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도로변에 자리한 학교의 위치가 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혀 없으며, 무단횡단 또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학교의 크고 작은 시합에는 교사들을 도와 학부모들이 학급 부감급 교사로 봉사하여 부정행위 없는 정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우고등학교 학부모회는 학생들의 교복과 체육복에 명찰을 달아줌으로써 교복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맛있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물품을 직접 검수하며, 부모님들의 의견을 학교 급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양가 있는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송우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은 포천에서 가장 예쁘기로 유명하다. 학생들의 예쁜 교복을 더 단정하고,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하는 좋은 노력은 바로 부모님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학교에 학생

들의 교복과 체육복에 일일이 명찰을 달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단정한 교복입기도 자리를 잡고 있어 학생생활지도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우고등학교 이미경 환경교육부장은 “송우고등학교는 현대사회의 공교육 붕괴문제를 학부모들과 학생, 그리고 학교측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봄에 벗나무는

벗나무는 반칙쟁이 생생 바람 부는 추운 겨울엔 다 함께 눈 감고 클름 자자고 때때로 벗으며 약속 해 놓고는 내리는 겨울에 잠 겹졌나봐.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실눈 뜨고 남 몰래 보았다가 벗나무는 자기가 하느님인양 살랑살랑 하얀 눈 뿌리는 거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겨울 얘기 해주지꾸자꾸 꽃눈을 뿌리는 거지



이지연 학생기자지단 부단장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14일 선단초등학교(교장 이상식) 운영위원회(위원장 나복현)와 어머니회와 교사들이 함께 체육행사 갖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은 체육행사전에 함께모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학교 화단에 지은 벌집 철거

포천초등학교 소방차 출동 안전하게

포천초등학교(교장 임종수)에 5월16일 어린이들이 수업에 마치고 하교한 후, 학교 운동장에 세대의 소방차가 들어 왔다. 화단의 나무에 있는 벌집을 철거하기 위해서이다.

포천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의 심혈관 질환을 위해, 화단에 여러 가지 꽃과 나무와 함께 딸기 보리 상추 등도 가꾸고 있는데, 나무 속에 벌집을 지어 놓고 꿀을 흡수해 화단에 피어있는 꽃 속의 꿀을 먹던 꿀벌들이 요즘 하얗게 피어 꽃향기를 내 풍는 아카시아 나무에까지 오 가다가 이 학교의 어린이들을 놀라게 했다.

나무 속에 숨겨진 벌집을 발견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바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벌집은 안전하게 철거되었다.

이날 수업을 마쳤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남아 있던 어린이들은 학교에 소방차가 오자, 벌 떼처럼 모여들었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어린이들을 보호하시느라고 노심초사 하셨다. 5학년 황주희 어린이는 “벌집을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봤었고 진짜는 처음 봤다”며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자연 학생명예기자 skfkg3@hanmail.net(포천초 5년)

부모님 자서전 쓰기 대회

포천초, 부모님 마음속 이야기 담아내기

포천초등학교(교장 임종수)는 5월7일 전교생이 '부모님 자서전 쓰기 대회'에 참여했다. 매년 5월8일 어머니날이 되면 부모님께 효행 편지 쓰기를 했지만, 올해는 부모님과 마음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의 자서전을 쓰기 위하여 부모님께, 부모님의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여쭙어 보았는데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효도하며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자연 학생명예기자 skfkg3@hanmail.net(포천초 5년)

함께 공부해요

위의지칙(威儀之則) 57

曲禮에 日坐不橫肱 하며 授立不하며 授坐不立 이니라. 橫肱 팔을 옆으로 뻗는 것. 수좌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 수립 서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 肱, 팔뚝. 곱어앉을 게

曲禮가 말하기를 “남과 나란히 앉았을 때에는 팔을 옆으로 뻗지 않는다. 서 있는 자에게 물건을 줄 때에는 곱어앉아서 주지 않고 앉아 있는 자에게 물건을 줄 때에는 서서 주지 않는다.”

“남과 나란히 앉았을 때 팔을 옆으로 뻗치면 나란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서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곱어앉아서 주거나 앉아있는 사람에게 서서 주는 것은 모두 받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양주승 박사지문원외교문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 수약생 12. <보기> : (5)
 * 저의 예약번호는 3679입니다
 마이웨이비즈니스 넘버리스 트루, 씹스, 세븐, 나인 <My reservation number is three, six, seven, nine.>
 * 5 번가 : 핏스에베누 <Fifth Avenue.>
 * 3 번 출구 : 엑시트 트루 <Exit Three.>
 * 107 번 버스 : 버스번호 원오세븐 <Bus number one Oh seven.>
 * 국가코드 #82 : 컨츄리코드 #82 <Country code eighty two.>
 * 지역번호 #31 : 에어리코드 페리원 <Area code thirty one.>
 * 여권번호 : 패스포트 넘버 <Passport number.>
 * 신분증 번호 : 아이디카드넘버 <ID card number.>
 * 표 번호 : 티켓넘버 <Ticket number.>

문의: 윤중성 (017-723-4977)colyoon@nate.com



김경선 관인어미집원장 kksn64@hanmail.net